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혁명군 무장소조활동

박 금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가들속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한생도 빛나고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선군혁명위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내진출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형권삼촌을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패의 공작소조를 국내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조에는 장백에서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부근에까지 진출할 과업을 주었다.》(《김일성전집》제96권 7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군 성원들을 여러 소조로 나누어 각지에 파견하시면서 김형권동지에게 조선혁명군 한 소조책임자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국내에로 진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조선혁명군 소조들을 국내에 파견하신것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혁명투쟁을 양양으로 이끄시는것과 함께 국내깊이에서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가를 료해하시기 위해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실천적성으로 보답할 굳은 맹

세를 안으시고 조국진출을 위한 사업에 달라붙으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국내진출을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우선 조선혁명군 무장소조가 장백일대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조직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대로 국내에 진출할 무장소조를 편성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지양개골에 자리를 잡으시고 장백현 큰절골과 소절골, 대덕수를 비롯한 장백일대에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적들의 탄압이 더한층 우심해진 조건에서 김형권동지께서는 의사로, 농민으로, 때로는 장사군으로 변복하시고 장백일대와 여러 농촌마을들에 나가시여 백산청년동맹원들과 군중속에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주체19(1930)년 7월 중순 김형권동지께서는 장백현 큰절골에 10여일간 계시면서 사업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곳에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성원들을 소절골, 지양개, 약수동, 큰골 등 여러곳에 파견하시는 한편 자신께서는 주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연설, 강연, 좌담회, 개별담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전활동을 진행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어느날 대신홍동 신흥학교 교실에 마을사람들을 모여놓고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연을 하시였다.

열정에 넘친 음성으로 근 2시간동안이나 하신 김형권동지의 강연은 군중을 크게 감동시켰다.

며칠후 다시금 큰절골에 가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마을청년들에게 우리의 원쑤인 일

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여 하루속히 나라를 해방시키자고 호소하시면서 여기 모인 청년들의 힘만 합쳐도 큰 일을 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후 소절골에 가시여셔도 대중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으며 장백현 지양개에 가시여서는 백산청년동맹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해설해주시고 이곳 조직들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을 알려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장백일대의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는 한편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하순 어느날 장백현 16도구 형제동 굴량골에서 백산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지도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모임에서 새것에 민감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호소하시여 그들의 반일투쟁열의를 북돋아주시였다.

그후 김형권동지께서는 백산청년동맹 16도구 형제동지부를 결성하신데 이어 대사동, 대신흥동에 나가시여 신흥학교 학생들로 소년회를 조직해주시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소년조직들을 소년회로 개편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장백지구에서 대중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국내 여러곳에 자주 나가시여 청년들을 대중적인 반일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시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정치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어느날 국내 갑산일대 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경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들의 국경경비진을 뚫고 국내에 나가시였다.

당시 갑산일대 조직들에서는 적들의 탄

압책동에 대처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조직성원들은 적들의 탄압에 겁을 먹고 일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동요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현상은 운총지구 조직들의 사업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해산 운총리부터 찾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운총리에 이르시여 반제청년동맹조직성원들과 운총육영학교 교원, 학생들속에서 적들의 탄압이 무서워 주저앉아 한탄만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누가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주기를 기다릴수 없다, 문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사업을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후 해산 검산리, 위연의 구광돌이, 신파와 아안리 등지에서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할 실천적대책을 세우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이처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장백일대와 삼수, 갑산, 신파를 비롯한 압록강연안일대의 각계각층 군중이 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또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가 군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위한 군사적경험을 쌓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군사훈련과 군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지양개부락 뒤산에다 훈련장을 꾸리고 사격훈련과 각종 무기의 고장퇴치법, 무기획득방법, 지형정찰과 지형리용방법 등 군사훈련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시였다.

무장소조가 해야 할 사업은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진행해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적들의 검질긴 감시와 탄압책동이 항시적으로 뒤따르

고 군사적 토대와 전투경험이 부족한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하였다.

그러나 김형권동지께서는 강의한 의지와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카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하나하나 관철해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지도핵심으로서 장백과 압록강연안 북부조선일대의 각계각층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시는 한편 군사훈련과 군사활동을 적극 조직전개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고심어린 노력과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의 정치 및 군사적준비가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국내진출준비가 완성되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국내진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19(1930)년 8월 초 어느날 김형권동지에게 통신원을 보내시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치군사활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서 국내진출을 단행할데 대한 최종지시를 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진출을 조직진행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우선 파발리에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의 과감한 군사정치활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소조일행과 함께 8월 14일 풍산군 지경리, 하지경리를 지나 황수원 배상개덕에서 로동자들로부터 내중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오빠시의 악랄한 죄행과 이곳 인민들의 원성, 파발리일대의 지형, 적기관의 배치정형 그리고 주재소 순사들의 수를 알아보신 후 파발리에서 첫 총성을 울리실 결심을 하시였다.

일제는 이곳 파발리에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등 각종 폭압기구들을 설치해놓고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일제는 젊은 청년들이 5명 이상 한데 모여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불은 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심문하였다. 특히 포악하고 잔인하기 그지 없는 마쯔야마가 풍산경찰서에 취임한 때부터 이곳 인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은 더한층 강화되였다. 포악무도하기로 소문난 마쯔야마놈에 대한 이곳 인민들의 원한은 가슴에 사무쳤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파발리어귀에 이르지자 소조를 두개 조로 나누어 주재소앞을 지나게 하시였다.

최효일조의 뒤를 멀찌감치에서 따르던 김형권동지께서는 오빠시가 소조를 주재소로 불러들이려는 불의의 정황에 대처하여 지체없이 주재소에 뛰어드시여 순사부장을 준렬히 단죄하시고 복수의 총탄을 안기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사격에 이어 격분한 소조원들도 복수의 총탄을 안기였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가 파발리에서 울린 총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온 우리 인민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멸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준 승리의 총성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총소리를 듣고 모여온 군중앞에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여 인민들을 원썩격멸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열화같은 연설은 국내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두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군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군중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지게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풍산군 파발리에서의 조선혁명군 무장

소조의 대담무쌍한 군사정치활동소식은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파발리소식은 삽시에 전국각지에 퍼지며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올리신 총소리에서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혁명투쟁에 결연히 일떠나섰다.

파발리사건후 일제는 인민들을 강제로 경비에 내몰았지만 그들은 이구실저구실을 붙여 나가지 않았으며 나가는 경우에도 경비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 얼마후 경찰들이 차단된 순사부장의 이른바 추도식이란것을 벌려놓았을 때에도 이곳 인민들은 누구도 거기에 나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파발리사람들은 《적기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를 많이 불렀으며 주체 20(1931)년 8월 어느날 리인모를 비롯한 파발리청년들은 파발리전투 1주년을 계기로 차단된 순사부장 마쯔야마의 《순직비》가 있는 바로 뒤산에서 적색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처럼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올린 총소리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일제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적들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또한 무장소조가 북청과 홍원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도록 조직지도하시였다.

파발리사건에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함경남도경찰부를 설치하고 300여명의 경찰들과 풍산, 리원, 북청, 단천, 홍원 등 립점 각 군의 무장경관들을 총출동시켜 삼엄한 경비진을 펴면서 후치령방면으로 《로벌대》를 들이밀고있었다.

며칠간의 행군으로 리원에 도착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단천농민폭동이후 적들이 펼쳐놓은 경계망과 지방조직들의 형편 그리고 파발리사건과 관련한 적들의 움직

임을 알아보시고 배덕골 샘물언덕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산당집을 거점으로 하여 대중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정치사업으로 산당집 리씨로인을 교양하시였으며 산당집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우물골, 작은 범석골, 작은 염주골 등지의 노동자, 화전민, 머슴군들속에서 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샘물언덕산당집에 며칠간 계시면서 이곳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적정에 대처하여 활동근거지를 대바위골로 옮기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정운을 통하여 이곳 핵심청년들을 장악하시고 그들의 방조밑에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시였고 구읍리를 비롯한 여러곳에 직접 나가시여 노동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어느날 구읍리 철공소를 찾으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노동자들과 메질을 같이 하시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못사는것이 타고난 팔자탓으로 생각하고있는데 그런것이 아니라 일체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주인노릇을 하면서 조선사람을 억압착취하기때문이다, 조선사람들이 마음놓고 잘 살자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모두다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철공소를 자주 찾으시여 그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각지에서 찾아온 반일운동자들에게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에 대하여 알려주기도 하시고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자들처럼 해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쳐주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야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해주시었다. 또한 계와 친목단체 같은 조직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의 각성정도, 성별, 직업, 지방적특성에 맞게 각이한 명칭의 반일대중조직을 내올 구체적인 방도도 가르쳐주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후 솟구이로동자들도 만나시어 그들속에 반일사상과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주체적혁명로선을 해설해주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 겹겹이 조여드는 원수들의 폭압망을 헤치시고 정력적인 정치선전활동을 벌리심으로써 한숨과 눈물로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한탄만 하던 수많은 국내인민들이 점차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진로를 따라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적극적인 군사활동도 벌리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단천농민폭동후 7개군의 일제경찰대가 리원군일대를 수색하고있는데다가 파발리사건이 있는 후에는 함남경찰부에서 신북청에 수색본부를 설치하고 매일과 같이 산중을 살살이 훑고있는 정황에 대처하여 범굴에서 조선혁명군무장소조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행동방향을 토의하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리원일대와 단천지방에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고 무장소조앞에 나서는 새로운 과업을 밝히시면서 북청, 홍원에 먼저 들러 대중조직을 꾸리고 단천일대 조직성원들과의 연계밑에 이곳 조직들을 복구하며 전망적으로는 함흥과 원산 등지를 거쳐 평양으로 진출할데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

으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소조원들을 인솔하시고 대바위골을 떠나 북청방면으로 행군하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적들과 대비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드센 타격을 가하시었다.

대덕산일대에 도사리고있는 일제경찰들을 타격하여 적들의 이목을 이곳에 집중시킨 김형권동지께서는 그밤으로 홍원읍을 향하여 북청 남대천을 건느시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홍원읍을 향해 행군하시다가 또다시 절부암근처에서 맞닥뜨린 일제경찰들과 전투를 진행하시었다. 또다시 불벼락을 맞은 적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속에서 갈팡질팡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동아일보》1930년 9월 9일부는 《절부암로상에 피청년 질문하자 권총발사》라는 표제아래 전투과정을 크게 보도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 국내에서 진행하신 군사정치활동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 애국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역사적계기로 되었다.

북부조선일대에서 과감히 벌리신 김형권동지의 대담무쌍한 혁명활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군사정치적준비를 다그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카툰회의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되었다.

참으로 김형권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 무장투쟁로선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안으시고 결사관철해나가신 참된 전사, 견결한 혁명가이시었다.